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20
----------	------

2021년 06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유용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 나. 발의일자 : 2021년 06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06월 14일
- 라. 상정결과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06월 1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유용 의원)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로 2032년 올림픽 개최도시가 선정될 예정으로 서울·평양을 관심도시가 아닌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하여 집중협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평양 공동개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을 결의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는 세계평화라는 올림픽 이념 실현의 최적의 도시인 서울·평양을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함.

나.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결의안의 취지

- 동 결의안은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로 2032년 올림픽 개최도시가 선정될 예정인 바, 서울·평양을 관심도시가 아닌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하여 집중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

서울·평양 공동개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서울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을 결의하고자 서울·평양을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나. 타당성 검토

-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18.9.19.)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이 2032 하계올림픽대회 남북공동개최를 유치 하는데 협력하기로 한 이후, 남북체육분과회담('18.11.2)에서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대회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함.

- 그 간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동의안”이 '18년 12월, '19년 9월에 각각 가결되었으며

이후 서울시는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IOC 미래유치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옴.

- IOC 미래유치위원회는 ‘북한과의 수차례 접촉시도 불발로 판단컨대 북한이 공동유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큼. 한국의 지속적인 유치 관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길 희망’ 한다는 내용으로 대한체육회에 서한('21.2.25.)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유력 경쟁도시였던 호주 브리즈번을 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함.

브리즈번은 올림픽 혁신안인 IOC 아젠다 2020에 부합하고 기존 올림픽 시설의 80~90% 이상을 활용하며 우수한 기후 여건, 도시 장기발전방향과의 높은 정합성과 압도적인 국내 지지여론 등을 이유로 선정됨.

- IOC 위원장은 ‘호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서울시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입장이며(2.28) 우리측은 유감 표명 서한을 두 차례(시장 권한대행 · 대한체육회장 3.4./문체부 장관 3.5.)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IOC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2032년 올림픽 개최

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채택하여 7월 21일 IOC총회에서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2032 하계올림픽 유치 우선협상 도시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되어 서울·평양 역시 우선협상 도시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 국민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과 2021년 개최 예정인 ANOC 총회 개최에 대한 지원을 결의하는 것임.

현재 올림픽 개최도시로 호주 브리즈번이 유력한 바, 혹여 올림픽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남북 간 스포츠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 개선 기회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 제3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

(유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2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6월 11일

발 의 자 : 유용, 김정태,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서윤기,
안광석, 양민규, 이정인,
최영주 의원(10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세계평화라는 올림픽 이념 실현의 최적의 도시인 서울·평양을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함.

2. 제안이유

-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로 2032년 올림픽 개최도시가 선정될 예정으로 서울·평양을 관심도시가 아닌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하여 집중협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평양 공동개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을 결의하고자 함.

3. 이송처

- 국제올림픽위원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의 초석이 될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선포한다.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는 80년간(2032년 기준) 선 하나로 인해 왕래조차 어려웠던 세계유일의 분단국가가 함께 펼치는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다.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경계와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는 비전으로 분단된 남북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연대와 포용, 선수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이 될 것을 확신한다.

IT 강대국이자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K-콘텐츠를 이끄는 소프트 파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평양, 두 도시가 함께하는 올림픽을 통한 폭발적인 시너지를 기대한다.

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남북 지도자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문제되지 않으며,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서의 공동개최는 평화올림픽이라는 더 큰 의의를 두게 될 것이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계평화라는 올림픽 이념 실현의 최적의 도시인 서울·평양을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2032 서울·평양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2021년 제25차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지원으로 국제 스포츠 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결정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마중물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1. .

서울특별시회의의원일동

Resolution on Successful Bid to Jointly Host the 2032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by Seoul and Pyongyang (Draft)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declares that it will provide active support for the successful bid to host the 2032 Seoul-Pyongyang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which will be the cornerstone for realizing world peace through sports.

If co-hosted by Seoul and Pyongyang, it will be Peace Olympics, staged by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ies where a line has prevented traffic between the two for the past 80 years (as of 2032).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firmly believes that the 2032 Seoul-Pyongyang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will connect the divided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vision of "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 minimize economic and environmental risks, and promote solidarity, tolerance and respect for athletes' human rights.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expects Seoul,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which is an IT powerhouse as well as a soft power with K-contents fascinating the world, and Pyongyang, a treasure trove of abundant resources, to create explosive synergy by jointly hosting the Games.

As there is already a consensus among the leaders of the South and North on the joint bid for the Olympics, concerns about the uncertainty in inter-Korean relations are not a problem. And the joint hosting in the unstable inter-Korean

relations will have greater significance as the Peace Olympics.

For the joint hosting of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by Seoul and Pyongyang,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resolves as follows.

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requests that Seoul and Pyongyang, the ideal cities for coming true the Olympic vision of world peace, be selected as preferred host cities for the 2032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hall inform the public that the 2032 Seoul-Pyongyang Olympics are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comple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e various activities to spread consensus.

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hall strengthen the status of Seoul as an international sports city by supporting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5th ANOC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 General Assembly in Seoul in 202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reaffirms that a decision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hold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in Seoul and Pyongyang would become the stepping stone for the only divided countries in the world to move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on 2 July 2021

All Members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